

새로운 시조 교육을 위한 질문 제시의 기법*

-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조를 중심으로 -

정기철**

〈국문초록〉

문학 교육을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학이 근본적으로 놀이이고, 만들기이고, 언어 예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도한 입시 경쟁,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정 해체, 부모의 잦은 간섭과 무리한 통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일 역시 문학이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조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심리적 외상을 치유하는 효율적인 기재이다. 따라서 시조 교육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조에 담긴 전통의 전수와 창조적인 계승을 통해, 시조가 지니고 있는 세계 인식 능력과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의 함양을 통해, 시조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생태주의와 대상에 대한 인식 태도의 복원을 통해, 그리고 시조에 쓰인 음성 언어의 회복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시조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시조 교육을 통해 시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청소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조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상상력·선이해 활용하기 - 시조에 구현된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형상화 방식에 대한 근본 태도를 경험하기 -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 학습자의 비판적 생각 표현을 중심으로 한 표현 활동하기 - 자아 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자 활동 중심의 감상 표현 활동하기'의 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한다. 그리고 학습 활동을 포함한 올바른 질문 제시의 기법도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학습자들이 시조를 통해 나를 표현하고 나를 절제할 수 있으며 나의 삶을 어떻게 설계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교수.

할 것인지 '분명한 지도(Clear-Map)'를 그릴 수 있다.

핵심어 : 자아 정체성, 정신적 외상, 털어놓기, 자기 노출, 통합적 규범, 주관의 객관화, 분명한 지도(地圖).

I. 서론

시조 연구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학교 교육에서 시조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1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3차 교육 과정까지 독본(讀本) 수준으로 진행되던 시조 교육은 4차 교육 과정에서 작품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별 다른 변화 없이 5·6차 교육 과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6차 교육 과정에 서부터는 '시조 교육 위축'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초·중·고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7차 교육 과정에서도 별 변화 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학습자 변이를 중시하면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현대 문학 작품을 수록하면서 시조는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다.¹⁾

물론 시조는 ① 작품 언어 해독 ② 갈래적 관습과 특성 이해 ③ 자유로운 현대적인 분위기와 다른 정형적 양식 ④ 작품 배경에 대한 생소함 등 시조가 지니고 있는 여러 요인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친근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²⁾ 그리고 지식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와 그에 영향을 받는 중·고등학교

1) 1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7차 교육 과정까지 일어나고 있는 시조 위축 현상과 7차 교육 과정의 시조 교육 내용 및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줄고, 「시조 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자 감상 활동 유형」, 『時調學論叢』 第 16輯, 韓國時調學會, 2000. 219-223쪽 참고.

2) 한창훈(「언어와 예술로서의 고전 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태학사, 1999)은 고전문학 교육은 ㉠ 텍스트에 관한 書誌的 이해·판단 ㉡ 텍스트 언어 해독 ㉢ 갈래적 관습·장치·특성의 이해 ㉣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요인, 환경 및 작자에 대한 이해 등 현대문학과는 다른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고전 시조 교육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다.

교의 교육 내용과 평가 방법 역시 고전 시조 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조 교육은 디지털 환경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그리고 일상생활의 풍부한 언어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조의 형성 원리와 새로운 시조 창작 방법을 고민하고³⁾, 시조의 문학 교육적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기도 하였다⁴⁾.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조 교육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시조를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금 더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에 다가서는 시조 교육, 시조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 문학과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문학과 일상적인 삶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문학과 인간의 삶을 튼실하게 지탱하는 기둥이며 나와 세계를 소통하게 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학이 '나는 누구인가'에 함몰하는 철학과는 달리 자연과 사물,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그들과의 균형 속에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명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시조 문학은 ① 민족의 전통을 오롯이 담고 있으며 ② 대상과 세계의 본질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진 ③ 안정적인 정형의 운율을 지닌 우리 전통의 시라는 점에서 현대인의 삶과 문학 교육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3) 원용문, 「시조의 형성 원리」, 『時調學論叢』 第 15輯, 韓國時調學會, 1999.

이영지, 「시조 창작론 - '물'과 '불'의 시조 창작적 一例 -, 『새국어교육』 52, 새국어교육학회, 1996.

김학성, 「시조의 정체성과 현대적 계승」, 『時調學論叢』 第 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4)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허왕욱, 「문학교육으로서의 시조교육」, 『時調學論叢』 第 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5) 줄고, 「시조 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자 감상 활동의 유형」, 『時調學論叢』 第 16輯, 韓國時調學會, 2000.

강명혜, 「시조교육의 현황과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時調學論叢』 第 20輯, 韓國時調學會, 2004.

개인의 역량과 운명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사회적·민족적 전통(Tradition)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전통(Tradition)이란 보편성의 고정불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을 통해 변화하고 비약하는 변증법적 질서와 내용 종목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의 오랜 전통을 담고 있는 시조 문학은 현대인들의 삶과 오늘의 문학 교육에서 중요한 자료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현대인의 삶을 위해, 오늘의 문학 교육을 위해 시조 문학을 특별히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 형식이 인간의 삶을 더욱 견실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시 형식이 원천적으로 배태하고 있는 비유와 상징은 대상과의 관계를 이끌어 내고 돈독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 상상력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대상과 세계의 본질을 끌어 올리는 힘도 가지고 있다.

시조 문학의 정형성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단단히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자유시는 새로운 형식과 사상, 정서를 끊임없이 창조해야 하지만 시조는 3장 6구 12마디의 정형화된 형식⁶⁾에 기대어 현대인의 서정과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편안하게 형상화하면 된다.

6) 시조 형식에 대한 논의는 김대행, 「時調形式의 意味」, (『時調學論叢』第11輯, 韓國時調學會, 1995.)와 이영지, 「시조창작론 - '물'과 '불'의 시조 창작적 一例 -」, (『새국어교육』52, 새국어교육학회, 1996.), 원용문, 「시조의 형성 원리」, (『時調學論叢』第15輯, 韓國時調學會, 199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김대행은 시조의 초·중·종장이 '대상-관계-의미'의 연결인 OMR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다시 대상(O-R)과 주체(M)로 양분되어 시가의 기본적 속성이 대상과 주체의 병렬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였고, 이영지는 3장 6구의 시조 형식이 500여 년 동안 반복된 것은 365일 반복되는 삶과 관련이 있으며, 3장 형식은 하늘, 땅, 인간이라는 3등분된 우주의 구조에서 기원하였으며 시조의 초·중·종장을 이끌어 가는 힘은 아침·점심·저녁이라는 일상생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다. 원용문은 훈민정음의 창제, 제사장림, 태극기 등이 동양철학(성리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면서 시조의 3장 6구 12마디의 형식도 역학(易學)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시조의 3장 6구 12마디 형식은 민족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삶을 지탱하고 형성하는 사유와 관습의 원리, 근원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조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조 교육은 '시조에 대한 교육'과 '시조를 통한 문학 교육'에 치중해있다⁷⁾. 최근에는 고전 문학 교육을 통해 문화적 혹은 실용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으나 학교 현장의 시조 교육에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조는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을 가장 탄실하게 담아내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조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현대인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입시 경쟁,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정 해체, 부모의 잦은 간섭과 무리한 통제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조 교육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통의 전수와 창조적인 계승을 통해, 시조가 지니고 있는 세계 인식 능력과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의 함양을 통해, 시조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생태주의와 대상에 대한 인식 태도의 복원을 통해, 그리고 시조에 쓰인 음성 언어의 회복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시조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II. 청소년의 삶과 문학 교육

1. 청소년과 청소년의 삶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청소년⁸⁾이라 하고 이 시기를 '질풍노

7) 시조 교육에서 말하는 '시조에 대한 교육'이란 시조의 형식, 작품 해석과 이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상황 등 시조라는 장르와 시조 작품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고 '시조를 통한 문학 교육'이란 시조 작품을 시나 소설 같은 다른 문학 작품을 이해하거나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도(storm and stress)'의 시기라고 한다. '질풍노도'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G.Stanley Hall인데 이 개념은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 더 구체화되어 이제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일컫는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신체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게 된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욕구와 신체적 성숙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아에 눈 뜨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심리·사회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정신 분석학자들은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극도의 혼란'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극도의 혼란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Anna Freud는 "청소년기에는 정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까지 하였다⁸⁾. 이처럼 청소년의 '극도의 혼란'은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자신에게는 매우 불안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초래한다. 청소년은 부모·선생님 등 기성세대에 반항하고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와의 갈등과 대결, 반목이다. 즉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야 한다.

청소년기의 투쟁 목표는 자아정체감(Self(ego)-Identity)을 획득하는 데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를 비롯한 기성세대에 반항하고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면서도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방법을 탐색한다. 동시에 또래들과도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

8) 학자에 따라 청소년기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하게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 한다. 본고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총칭하여 사용한다.

9) 청소년기의 '극도의 혼란'에 대해서는 Richard J. Gerrig · Philip G. Zimbardo 지음, 박권생 외 옮김, 『심리학과 삶』 제16판(시그마프레스, 2006) 284-287쪽을 참고할 수 있다.

고 자신의 삶을 준비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감을 재인지하고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

진정한 정체감은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체감', '개인 차이에 대한 정체감'이 모여 형성된다.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감은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는 존재에 대한 확신과 생명의 존귀함을 인식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내 생명에 대한 애착과 신념이 정체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내 생명'에만 집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내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때 비로소 소중해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체감은 내가 지금 처해있는 공간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Here and Now). 과거에 대한 후회나 집착, 미래에 대한 불운과 우울보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충실하고 현재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공간과 상황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더 나은 공간과 상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차이에 대한 정체감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른 환경과 생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과 나 역시 그 중 한 사람이라는 자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나는 나 홀로 존재하거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환경, 성격, 적성, 인지능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정체감을 지니고 있으면 삶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나의 삶을 주도적·자율적·희망적으로 실천하고 계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건강한 정체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2007년 한국청소년건강재단과 행복가정재단이 전국 7개 도시의 청소년 1,3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 정도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는데, 한국청소년은 독일·스웨덴 청소년과 함께 자아 존중감이 매우 낮았으며 자신감은 조사 나라 청소년들 중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이 낮으면 자아 정체감에 대한 확신과 개발을 갖기 어렵다. 정체감이 낮으면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여겨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열등감을 갖기 쉬울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보여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아 정체감이 낮으면 성취동기나 미래 지향성이 낮아 학업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하게 된다.

특히, 대학 입시를 위한 과도한 경쟁과 부모의 과잉 통제 등에 의해 강박장애¹⁰⁾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0) 강박장애란 특정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반복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신과 질환을 말한다. 한국 청소년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강박장애는, 자해하거나 남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공격에 대한 강박·성도착적 충동과 어린이나 또는 근친상간에 관한 상상에 사로잡힌 성적인 강박·먼지나 세균으로 병에 걸릴까 지나치게 걱정하여 피가 나도록 몸을 씻는 과도한 청결 강박·물건을 항상 반듯하게 두어야 한다는 정확성 집착 강박·질병, 신체 부위, 외모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는 신체적 강박 등이 있다.

에 의하면 2007년 강박장애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은 2,941명에 달해 2002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은 병원을 찾은 학생들의 6 - 10배로 추정하고 있어 2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강박장애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강박장애의 또 다른 요인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6년 9월에 중·고등학교 학생 7만 1천 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청소년 건강상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47%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과도한 입시 경쟁,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정 해체, 부모의 잦은 간섭과 무리한 통제, 일상생활에서 얻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감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정체감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 충동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도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는 범죄로 나타나기도 한다¹¹⁾.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아 정체감을 갖지 못한 채 자기를 발전시키지도 못할뿐더러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면 인생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와 위기에 대해 자기 일관성(sense of coherent self)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 정체감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1) 2008년 6월 5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2세 - 19세 사이의 '소년범죄' 접수 건수가 2004년 22,810건, 2005년 24,353건, 2006년 25,946건, 2007년 37,910건으로 3년 사이에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전체 소년 범죄의 5.9%(3,225건)에 불과하던 여자 소년범은 2007년 17.6%(6,665건)로 3배 늘어났다. 소년 범죄 평균 연령 역시 1998년 16.2세에서 2007년 15.7세로 낮아졌다.

2. 새로운 시대의 문학 교육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 교육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인간은 문학을 통해 슬픔과 좌절을 이겨내고, 문학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를 수 없는 욕망과 포부를 문학 속에서 이루었다.

문학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많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문제와 비슷한 문제에 부딪힌 등장인물을 보며 동질감을 느끼며 일종의 위안을 받기도 한다. 문학 속에서 삶의 체험을 확장하여 내가 좀 더 자랐다는 뿌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문학 속에서 온갖 위험을 경험하면서 삶이 녹녹하지 않다는 진지한 성찰도 한다.

〈청산별곡〉을 읊조리며 도시 생활에 찌들어 있는 나를 청산과 바다에 옮겨 놓고 도시 생활의 각박함과 긴박함을 이완하고 안정을 되찾기도 하고, 〈강호사시가〉나 〈어부사시사〉를 통해 자연의 풍취를 음미하고 잠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상처 난 마음을 치료하고 또 위로 받기도 한다. 노천명의 〈사슴〉을 읽으며 사슴에 나를 이입하여 눈물을 흘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나의 감정을 맑게 닦기도 한다.

또 다른 예들을 더 들지 않더라도 문학은 오래전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과 시름을 잊게 하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에게 안정과 평온함을 주었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정서의 일치를 경험하고 공감하고 감동하였다. 그래서 좋은 문학 작품을 읽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을 느끼며 삶에 대해 용기를 갖는다. 눈 앞의 세상도 이제까지 보아오던 세상과는 달리 더 깨끗하고 환해진 느낌을 받아서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이

처럼 문학은 오래전부터 인간은 삶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이제 문학을 인간과 인간의 삶에 조금 더 끌어들이고 문학을 통해 현대인의 과도한 긴장과 극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문학의 외도가 아니라 문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문학은 놀이¹²⁾이고 만들기이고 언어예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이란 ‘언어로 무엇을 만들며 노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하고 인문학에서 사유와 논리를 강조하면서 문학이 원래의 모습을 조금씩 잃기 시작하였다. 문학이 지니고 있던 공동의 아픔과 정서를 공감하고 감동하는 대신, 사상을 따지고 가치를 논하면서 문학이 인간 모두가 즐기는 놀이가 아닌 철학처럼 골치 아픈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문학은 점점 더 문자에 갇히고 개인적 사상이나 감정에 함몰되고 말았다.

결국 “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다”라는 말을 문학에서도 꼭 같이 하게 되었다. “문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말을 문학에서도 종종 말하게 되었다. 철학이 되었든 문학이 되었든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철학과 문학이 이미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너무 현학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이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멀어지면서, 특히 정보사회가 되면서 언어마저도 인간의 마음과 정서를 담지 못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문학과 언어를 잃은 현대인은 심각한 병리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12) ‘놀다’와 관련된 어휘들은 ‘Leisure · Recreation · Entertainment · Play’이다. ‘Leisure’는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놀면서 충전하고, 놀면서 사유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Recreation’은 장난 · 재미(Fun)를 기반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Entertainment’는 위안 · 오락 · 연예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사로잡히다 · 도취 상태를 의미한다. ‘Play’는 경기하다 · 연주하다 · 연극하다 · 수행하다 등의 개념으로 몸으로 무엇을 행하고 행함으로써 무엇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문학은 ‘놀이’라는 개념은 ‘Play’를 기반으로 한다.

최근 '독서치료', '문학치료'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그만큼 현대인들의 정신적·심리적 외상과 병리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문학작품을 읽고 문학적인 글(정서적인 글)을 쓰는 것이 현대인의 정신적·심리적 외상과 병리현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광석을 갈아 분말로 만든 뒤 물과 혼합해서 진흙 상태로 만들어 수은을 첨가하면 아말감이 되고 이 아말감에 열을 가하면 수은은 증발되고 금만 남게 되는데 이런 제련법을 일컬어 아말감법이라고 한다. (중략) 문학치료란 곧 억압된 심층을 문학을 통해 드러내고 치유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금을 캐는 것처럼 인간의 심층을 문학을 통해 드러내고 치유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금을 캐는 것처럼 인간의 심층에 있는 보물을 드러내는 것이 금광과 제련에 관한 은유로서 충분할 것 같다. 금광석이라는 심층은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금광석의 채굴로 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련의 과정 없이는 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과 원자 기호나 결정(結晶) 모양이 아주 유사한 수은을 이용해 아말감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병리와 아주 유사한 문학이라는 촉매로 허구의 아말감을 만들 수 있다.¹³⁾

금광석은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을 의미하고 금은 인간의 심층에 숨어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말한다. 긴장과 불안, 갈등과 반목이 섞여 있는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에서 인간다운 인간만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문학이라는 아말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학은 인간다운 인간과 원자 기호나 결정 모양이 같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인간의 원자 기호나 결정 모양이 같은 문학으로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을 녹여낸 뒤에야 인간다운 인간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이라는 허구의 아말감을 통해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을 인간다운 인간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13)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7. 5쪽.

문학 교육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학의 장르, 구조, 양식 등 지식적이고 분석적인 문학 교육도 필요하지만 문학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과 일상을 공감하고 어루만지는 문학 교육도 필요하다. 문학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혹은 문학 작품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¹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학을 통해 인생을 이해하고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문학 교육을 진지하게 재논의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학교육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수업 모형과 지도 방법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Ⅲ. 시조 교육과 새로운 질문 제시의 기법

새로운 문학 교육을 논의하면서 시조 교육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시조가 새로운 문학 교육의 효율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시조는 형식, 주제, 표현 방식, 길이, 언어적 측면에서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명혜¹⁵⁾는 시조 교육의 수월성에 대해 ①時調는 3장 구조의 정형을 갖추고 있고 ②無色, 無臭, 無味한 세계를 표방하고 있어 주제를 밝히기 수월하고 ③ 다른 장르에 비해 창작 배경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할 수 있으며 ④길이가 길지 않아 학습자의 고쳐 쓰기 활동에 적합하고 ⑤대부분 사적인 체험을 평범한 언어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다른 장르나 일상적인 언어 형상과 연관

14)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0주년을 맞이하여 작가 조세희 씨가 “내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한 시험 문제를 푼다면 다 틀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다른 작가들도 조세희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 문학 교육이 문학의 본질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姜明慧, 「時調教育의 현황과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時調學論叢』第20輯, 韓國時調學會, 2004.1.

시키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조를 통해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유 방식과 대상에 대한 인식 태도, 인간과 세계관을 되찾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조에 담긴 전통의 전수와 창조적인 계승을 통해, 시조가 지니고 있는 세계 인식 능력과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의 함양을 통해, 시조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생태주의와 대상에 대한 인식 태도의 복원을 통해, 그리고 시조에 쓰인 음성 언어의 회복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시조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1. 교과서 수록 시조 작품과 학습 활동 분석¹⁶⁾

중학교 교과서에는 본문에 네 수, 학습 활동이나 보충·심화 학습의 제시문으로 세 수 등 총 일곱 수의 시조가 실려 있다. 우선 1학년 2학기 4단원 '시의 세계'에 김상옥의 <봉선화>라는 현대 시조를 현대시 3편과 함께 수록하였다. 그리고 학습활동으로는 ① 각 연 내용 정리하기 ② 주된 정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 찾아 적기 ③ 운율에 맞춰 읽으면서 끊어읽을 곳에 V 표시하기 ④ 박인로의 <오류가> 25중 <동기로 세 몸 되어> 한 수를 제시하고 <봉선화>의 운율과 비교하기를 제시하였다. ①과 ②는 시조의 내용에 관한 활동이고 ③과 ④는 시조의 운율에 관한 활동이다.

또, 중학교 2학년 1학기 3단원 '우리 고전의 맛과 멋'에 <서동요>, <슬견설>, <토끼전>을 싣고 보충·심화 학습에 정철의 <훈민가> 16수 중 <이고진

16) 본고에서 분석한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는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 국어』1-1,1-2,2-1,2-2,3-1,3-2(교육과학기술부, 2008.9.1)와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편, 『고등학교 국어(상), 국어(하)』(교육인적자원부, 2007.3.1)를 자료로 하였다. 편집상 각각의 주는 생략하였다.

저 늙은이>(시조1)와 지은이 미상인 사설시조 <개를 여남은이나>(시조2)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선택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1. 시조 1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 ① 이 시조의 주제를 간단히 말해보자.
- ② 이 시조를 쓴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 등을 추측해보자.

2. 시조 2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 ① 시조 2를 읽고 난 느낌이 어떤지 말해 보자.
- ② 이 시조에서 말하는 이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이 사람은 자기 집 개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 ③ 다음 소재를 참고하여 시조를 한 수 지어 보자. 여기에 제시된 소재 외에 다른 소재로 시조를 지어도 좋다.

우리집 애완동물, 봄, 내 친구 ○○, 사춘기, 체육시간

학습 활동 1-①은 시조의 주제를, 2-①은 느낌을 말하도록 하여 시조 전체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으며 1-②는 작가의 신분이나 나이를 추측케 하여 어구 표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것을 바탕으로 신분이나 나이를 추리하도록 하였다. 2-②는 시적 화자와 소재(개)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정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역시 어구에 대한 이해와 소재에 대한 감정을 묻고 있다. 반면 2-③은 소재를 제시하고 시조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2-③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품에 이해에 대한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조를 읽는 학습자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교과서 시조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자 주도의 창작 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¹⁷⁾. 2-③은 시조를

17) 교육부에서 발간한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를 보면 국어 과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국어 문화 창달'을 적시해놓고 있고, 역시 같은 책 문학 영역

짓도록 되어 있으나 소재 중심의 활동이어서 시조를 시조답게 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¹⁸⁾

3학년 1학기 1단원 “시의 표현”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배추의 마음>(나희덕), <낙화>(이형기) 등 현대시 3편 다음에 현대 시조인 <독방길>(유재영)을 실었다. 이 1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은 ‘비유하기·강조하기·변화주기’ 등 시의 표현 방법으로 수사법을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이 시의 정경을 묘사해 보자”, “이 시의 분위기를 살려 주는 소재를 찾고, 그 소재들이 주는 느낌을 적어 보자”, “다음 사진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풍경을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시로 써보자” 등으로 정경 묘사와 소재의 느낌을 적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자유로운 운율을 가진 현대시 3편과 정형률을 가진 현대 시조를 같은 단원에 배치하면서도 시조의 정형률에 대한 설명과 정형률의 장점에 대한 내용, 정형률을 살리는 창작 활동들이 생략되어 있다.

어린 염소
등 가려운
여우비도
지났다.

목이 긴
메아리가
자맥질을
하는곳

을 살펴보면 ‘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통해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수용’ 뿐만이 아니라 실제 ‘창작’ 활동을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18) 학습자 주도의 시조 학습의 모형에 대해서는, 줄고, 『시조 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자 감상 활동 유형』(『時調學論叢』第16輯, 韓國時調學會, 2000) 231-232쪽 참고.

마알간

꽃대궁들이

물빛으로

흔들리고.

(유재영, <독방길> 中 첫째 수)

유재영의 <독방길>은 총 2수의 연시조로 시조의 한 구를 한 행으로 표기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교실에서 <독방길>에 대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으나 ‘단원의 길잡이’, ‘학습 활동’, ‘보충·심화 학습’ 등 그 어디에도 시조의 정형률과 현대 시조의 독창적인 행구분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나 활동이 전무하다.

3학년 2학기 4단원 “고전문학감상”에는 신흠(申欽)의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와 작가 미상의 사설시조 <논밭 갈아 김 매고> 두 편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학습 활동으로는 “두 시조의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표현해 보자”,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두 시조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들 작품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특질을 말해 보자”, “사설시조 <논밭 갈아 김 매고>를 대상으로 시조에 어울리는 곡정하기·노랫가락에 맞게 시조 내용 수정하기·가락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를 제시하였다.

이 4단원 “고전문학감상”은 (1) 한국문학의 개념과 특질(설명문, 김대행) (2) 가시리(고려가요, 작가 미상) (3) 시조 두 편 (신흠의 시조와 작가 미상의 사설 시조) (4) 박씨전(고전소설, 작가 미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전 문학 감상 이유와 고전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우리 문학의 특질은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의 특질을 알고 고전 문학 작품을 읽으면, 우리 선인들의 모습,

태도, 가치관 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현실 대응 방식에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어져 내려온 민족 문학의 뿌리를 알게 되어, 우리 문학에 대한 교양과 애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한국 문학을 창조하는 힘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삶을 깊게 이해하고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교양을 갖춘 한국인이 되기 위하여 고전 문학 작품을 즐겨 읽어야 한다.

고전 문학 감상의 의의로는 '①우리 선인들의 모습, 태도, 가치관 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②그들의 현실 대응 방식에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③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④민족 문학의 뿌리를 알게 되어, 우리 문학에 대한 교양과 애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로 제시되어 있고 고전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로는 '우리 민족의 삶을 깊게 이해하고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교양을 갖춘 한국인이 되기 위하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고전 문학 감상의 의의와 고전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하는 목표는 아주 적절하다. 문제는 이러한 의의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달성할 수 있는 작품 선정과 일정한 기준에 의한 학년별 배열, 과정을 유도하는 질문 등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상)·(하)에는 모두 두 수의 시조가 실려 있다. 국어(상) 6단원 “노래의 아름다움”에는 <청산별곡>(작가 미상, 고려가요), <어부사시사>(윤선도)¹⁹⁾, <진달래꽃>(김소월), <유리창>(정지용), <광야>(이육사) 등을 실어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이 어떤 특질에 의해 실현되는지 활동’할 것과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며 듣는 태도가 중요함’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았다.

19) 교과서 실린 <어부사시사>는 춘사(春詞)4, 하사(夏詞)2, 추사(秋詞)1, 동사(冬詞)4이다.

학습활동 ‘혼자하기’에서는 ‘황진이의 시조〈어더 느ㅣ 일이여〉와 형태적 특징 비교하기’, ‘형태적 특징이 노래의 아름다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함께하기’에서는 ‘작품 속 화자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하기’, ‘발표자와 다르게 생각한 점을 적어 보기’,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로 토론해 보기’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검하기 활동을 제시하였다.

내 용	상	중	하
· 문학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 시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 시의 형상성, 음악성, 함축성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 초인지를 활용한 듣기 활동을 할 수 있다.			
·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며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안다.			

국어(하) 4단원 “효과적인 표현”에서는 이기백의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이정준의 〈눈길〉 등 산문 두 편을 읽고 심화 학습에 『악장가사(樂章歌詞)』에 실린 작가 미상의 〈사모곡〉과 박재삼의 〈추억에서〉와 더불어 정인보의 〈자모사〉를 수록하고 ‘세 편의 시에 나타난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이야기하기’, ‘세 편의 시 중에서 하나를 참조하여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시로 표현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본문에 고전 시조 한 수와 심화 학습에 현대 시조 한 수를 실었다. 심화 선택 과목에 문학 교과가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조 수록 편수가 적고 학습 활동의 내용 역시 시조가 지니고 있는 갈래적 특성을 온전하게 학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족한 수업 시수와 같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이 시조를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고 자아 존중감 획득을 통해 자아 정체성

을 높일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새로운 학습 활동을 위한 질문 제시의 기법

다른 교과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시조 수업에서도 무엇을 질문하느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학습자들의 반응은 글을 이해하는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의 시조에 대한 인지과정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는 다양한 질문의 기법이 활용되지 않고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질문들로 과제로 제시하거나 생략하는 등 질문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⁰⁾ 이러한 현상은 학생의 창의적 사고 발달에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보를 학생이 자주적으로 채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따라서 시조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구안하여야 할 것이다.

질문은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와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교수의 단서가 되고, 질문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특정 행위의 안내 자료로, 또는 특정 방향으로 그의 사고나 행동을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²¹⁾ 즉 질문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자극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질문에는 다양한 차원과 종류가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Huggings에 의하면 질문에는 여섯 개 차원이²²⁾ 있으며, 효과적인 질문

20) 수업에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홍규·김규순, 「교사의 질문 활용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교육논총 제12집』,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2)와 변홍규, 『능률적인 질문의 기법』(선명출판사, 1990)를 참조할 수 있다.

21) Wilen, W. W. Questioning skills, for teachers(4thed). Washington, D. C. : Natidnal Education Association, 1991.

22) huggings(1989). (변홍규, 『질문 제시의 기법』, 교육과학사, 1996. 14-15쪽. 재인용.

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원을 뚜렷이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심리적인 외상과 갈등에 시달리는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 및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기 노출(Self-disclosure)과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학급 전체, 혹은 소그룹별로 말하기·글쓰기와 같은 상호소통의 표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말하기·글쓰기 등 상호 소통적 표현 활동을 적극 활용하면, 구성원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지고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 집단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 능력을 높임으로써 통합적 규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Nicholas Mazza는 시를 정신적·심리적 외상 치료에 적용하면서 시 치료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3)

- ① 수용적/처방적 요소(receptive/prescriptive component)
치료에 기존의 문학 작품을 도입하는 것
- ② 표현적/창조적 요소(exoressive/creative component)
치료에 내담자의 글쓰기를 사용하는 것
- ③ 상징적/의식적 요소(symbolic/ceremonial component)
은유, 의식(rituals), 이야기 들려주기를 사용하는 것

‘수용적/처방적 요소’는 기존의 시를 읽어 주고 학습자의 반응을 끌어내면

Huggings가 말한 질문의 여섯 개 차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 기능수준(인지적 또는 정의적 영역) 2. 초점수준(수렴적 요구와 확산적 요구) 3. 역동적 수준(질문의 개방성과 폐쇄성) 4. 곤란도 수준(도전적 인지 수준) 5. 관심도 수준(열의와 관여, 또는 호기심 유발의 정도) 6. 실현성 수준(학습자의 처리 능력, 필요한 자원과 시간의 여유, 사회적 규범의 격려성 등)'이다.

23) Nicholas Mazza 저·김현희 외 공역, 『시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 45-46쪽.

서 학습자들이 시와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표현적 창조적 요소'는 학습자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질서감과 구체성을 얻을 수 있도록 시를 포함한 다양한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징적/의식적 요소'는 시의 은유(Metaphors)와 상징(Symbol)을 활용하거나 우리 민족이 문화적, 또는 역사적·사회적으로 지니고 있는 의식(Rituals, 儀式)을 적용하고 응용하거나 시의 내용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Storytelling)이다.

시조는 Nicholas Mazza의 시 치료 모델 3요소를 모두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시조가 길이가 짧고 3장 6구, 안정된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용적/치방적 요소'를, 無色·無臭·無味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 다양한 글쓰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은 '표현적/창조적 요소'를, 은유와 상징·풍자와 함께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과 관습을 지니고 있으며, 쉽게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점은 '상징적/의식적 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 시조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신적·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아 정체성(Self-Identity)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는 어떠한 과정과 지도 방법으로 시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조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상상력, 선이해(per - understand) 활용하기 → 시조에 구현된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형상화 방식에 대한 근본 태도를 경험하기 →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기²⁴⁾ → 학습자의 비판적 생각 표현을 중심으로 한 표현 활동하기 → 자아 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자 활동 중심의 감상 표현 활동하기'의 과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학습자들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갈 것인가를

24)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의 대표적인 양식으로는 '반응일지 쓰기'가 있다. 반응일지의 활동 항목은 ① 작품의 줄거리 ② 인상적인 대목 ③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 ④ '나'에게 주는 의미 ⑤ 토론한 내용 ⑥ 하고 싶은 이야기 ⑦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⑧ 다음 독서 계획 등이 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지도(Clear-Map)'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모형이 필요하다.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⁵⁾

(1) 동기 유발 단계 [학급 활동]

- ㉠ 교과서의 시조 작품 읽기
- ㉡ 주제가 비슷한 시조 읽기(자료는 교사나 학습자, 또는 공동 선정)
- ㉢ 주제가 비슷한 산문 읽기(자료는 교사나 학습자, 또는 공동 선정)
- ㉣ 주제와 비슷한 경험 이야기하기(학습자)

(2) 기초 단계 [개별 활동]

- ㉠ 학습자 자신의 경험을 산문 또는 3행시로 쓰기
또는, 자신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쓰기
- ㉡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작자의 경험 비교하기

(3) 심화 단계

- ㉠ (2)의 ㉠글을 압축하여 3·4자, 4음보로 정리하기
- ㉡ (2)의 ㉠글과 다른 점 이야기하기(산문과 운문의 차이점 알기)
- ㉢ 시조 형식에 대해 토론하고 질문하기

(4) 발전 단계

- ㉠ (3)의 ㉠를 시조의 운율에 맞춰 고쳐 쓰기
- ㉡ 교과서에 실린 시조와 자신이 쓴 시조의 형식 비교하기

25) 사용한 번호 중 '(1), (2), (3)···'은 활동 단계의 순서이나, '①, ②, ③···'은 순서와 상관없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학습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순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 모형은 여러 가지 모형 중 기본적인 모형의 한 예일 뿐임을 밝힌다.

(5) 정리 단계

- ㉞ 자신이 지은 시조 발표하기
- ㉟ 다른 학생이 지은 작품을 읽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 토론하기
- ㊱ 토론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쓴 시조 다듬기

(6) 추후 활동 단계

- ㉞ 교과서에 실린 시조 작품의 대상 인식방식에 대해 공감하거나 비판하기
- ㉟ 현대시와 다른 점 이야기하기
- ㊱ 관련 학습 활동 및 관련 주제 토론하기

이러한 교수·학습 모형은 학년이나 학습자의 수준, 교과 과정이나 수업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조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또래 집단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다양한 또래들의 생활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식과 암기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양식을 읽고 쓰는 표현 활동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시조 교육을 위해 질문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다. 질문의 내용 역시 학습자의 학년과 교과 과정, 수업 목표와 작품의 내용·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시 치료를 위해 Nicholas Mazza가 제시한 다음의 질문 내용들은 시조 교육의 질문 내용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1. 이 시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2. 이 시가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3. 이 시에 주제나 메시지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정의하고 논의해 보세요.

26) Nicholas Mazza 저·김현희 외 공역, 『시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 223-224쪽.

4. 이 시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정의하고 논의해 보세요.
5. 당신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행이나 시상이 있습니까?
6. 이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유형(나이, 성별 또는 민족)의 내담자가 있습니까?
7. 이 시는 어떤 유형의 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습니까?(예를 들면 우울, 불안)
8. 이 시에서 혹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9. 이 시가 당신에게 어떤 노래, 영화 또는 다른 문학 작품을 상기시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해 보십시오.
10. 이 시에 대한 반응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11. 이 시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체적인 행위 또는 춤으로 해석해 보세요.
12. 시인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쓰시겠습니까?
13. 이 시에 어울릴만한 심리학적 이론을 골라 보세요.
14. 내담자에게 이 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15. 이 시는 독자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까?
16. 이 시에 '희망'이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위의 질문 내용들을 분석하면 ①작품의 주제나 이미지에 대한 이해와 반응하기(1,3,4,15) ②작품을 현재의 삶으로 전환하기 및 의미 찾기(2,5,11) ③상응의 원리를 적용한 다양하게 표현하기(9,10) ④비판적·창조적으로 활동하기(8,12) ⑤현실에서 경험한 문제들로 환치하기(6,7,13) ⑥작품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심리적 위험성 파악하기(14) ⑦작품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 설계하기(16)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 내용은 '문학 작품을 반응 중심으로 활동하기 → 다양하게 표

현하기 → 비판적·창조적으로 해석하기 → 나와 현실 생활의 문제로 전환하기 → 잘못된 반응에 대해 숙고하기 → 긍정적인 비례 설계하기' 순서로 재조직할 수 있다.

IV. 결론

문학의 문화적·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각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문학을 인간과 인간의 삶에 조금 더 끌어들이고 문학을 통해 현대인이 겪고 있는 병리적 현상을 치유하는 일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문학의 외도가 아니라 문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문학은 놀이이고 만들기이고 언어예술이기 때문이다. 문학을 자연과학과 구분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사유와 논리를 강조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오히려 그 짧은 기간에 문학은 원래의 모습을 잃기 시작하여 점점 더 문자에 갇히고 개인적 사상이나 감정에 함몰되고 말았다.

이제 문학은 자유롭게 느끼고 나를 표현하고 그를 통해 나와 다른 삶을 이해하고 나를 절제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특히, 정신적·심리적인 외상과 갈등에 시달리는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 및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기 노출과 자기 표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문학 교육을 논의하면서 시조 교육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시조가 새로운 문학 교육의 효율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시조가 형식, 주제, 표현 방식, 길이, 언어적 측면에서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조를 통해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유 방식과 대상에 대한 인식 태도, 인간과 세계관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통의 전수와 창조적인 계

승을 통해, 시조가 지니고 있는 세계 인식 능력과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의 함양을 통해, 시조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생태주의와 대상에 대한 인식 태도의 복원을 통해, 그리고 시조에 쓰인 음성 언어의 회복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질문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 효과, 학습자의 두뇌 계발과 인지 능력 향상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지선다형과 단답형을 주요 평가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상호 소통적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학습 활동' 문제를 통해서만 질문 내용이나 질문 과정을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 과정은 단순한 작품 이해와 형식, 갈래적 특성,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질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신적·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질문의 과정과 학습 모형, 질문의 내용에 대해 고민하였다. 우선, '시조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상상력, 선이해 활용하기 → 시조에 구현된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형상화 방식에 대한 근본 태도를 경험하기 →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 학습자의 비판적 생각 표현을 중심으로 한 표현 활동하기 → 자아 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자 활동 중심의 감상 표현 활동하기'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학습자들에게 시조 교육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지도(Clear-Map)'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 국어』1-1, 1-2, 2-1, 2-2, 3-1, 3-2, 교육과학기술부, 2008.9.1
-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편, 『고등학교 국어(상), 국어(하)』, 교육인적자원부, 2007.3.1
- 교육부,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姜明慧, 『時調教育의 현황과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時調學論叢』 第20輯, 韓國時調學會, 2004.1.
- 김대행, 『時調形式의 意味』(『時調學論叢』第11輯, 韓國時調學會, 1995.
- 김학성, 『시조의 정체성과 현대적 계승』, 『時調學論叢』 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 변홍규·김규순, 『교사의 질문 활용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제12집,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2.
- 변홍규, 『능률적인 질문의 기법』, 선명출판사, 1990.
- 변홍규, 『질문 제시의 기법』, 교육과학사, 1996.
- 원용문, 『시조의 형성 원리』, 『時調學論叢』 第 15輯, 韓國時調學會, 1999.
- 이영지, 『시조 창작론 - ‘물’과 ‘불’의 시조 창작적 一例 -』, 『새국어교육』 52, 새국어교육학회, 1996.
- 정기철, 『시조 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자 감상 활동 유형』, 『時調學論叢』 第 16輯, 韓國時調學會, 2000.
- 정기철, 『고전시가 퍼 올리기』, 역락, 2005.
- 한창훈, 『언어와 예술로서의 고전 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태학사, 1999
-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 허왕욱, 『문학교육으로서의 시조교육』, 『時調學論叢』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 Nicholas Mazza 저·김현희 외 공역, 『시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
- Richard J. Gerrig·Philip G. Zimbardo 지음, 박권생 외 옮김, 『심리학과 삶』제16판 (시그마프레스, 2006.
- 페니베이커 J.W, 김종한·박광배 공역, 『털어놓기와 건강』, 학지사, 2007.
- Wilens, W. W. Questioning skills, for teachers(4th ed). Washington, D.C. : Natidnal Education Association, 1991.

<Abstract>

Methods for Question Presentation in New Sijo Education

Jung, Ki-cheol

Unlike Sijo researchers' wishes, there is no enough place for Sijo in school education. Its falling tendency has caused the crisis of literature. Literature is not only an act of making a human life become itself humanly but also the most effective way for communicating with all around the world. Especially, Sijo is an important genre for four reasons: ①understanding about the traditional sentiment, ideology(thoughts), and way of life of a people, ② including the wisdom to help us live in reality, ③having a set pattern (standard)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to develop the language culture, ④letting us know about the root of the racial literature.

Thes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Sijo are the machinery and materials that can elevate the self-identity of teenager who has been undergoing emotional and psychological instability. Therefore, Sijo education should be done to draw a 'clear-map' by using the following order: to understand of Sijo and apply the subjective experience, imagination, and pre-understanding of a learner to it - to understand the embodied world in Sijo in the concrete and experience the basic manner about the way of putting the world into shape - to express the learner's idea and feeling freely and positively - the expression activity focused on their critical thinking - an appreciation expression stressed on the learner's activity to elevate the self-identity.

Keywords : Self-Identity, trauma, Opening Up, Self-disclosure, Unified moral rules, Objectification of Subjectivity, Clear-Map.

이 논문은 2008년 11월 30일(월)까지 투고 완료되어,
2009년 1월 4일(일)부터 1월 14일(수)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9년 1월 22일(목)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